

장기이식수술의 문제점

류을상/동아일보 과학부기자

인체의 장기를 갈아끼워 神의 영역에 도전하는 장기이식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장 어려운 수술로 꼽혀온 肝이식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간 일부를 떼내 이식하는데까지 성공함으로써 장기이식의 영역은 더욱더 넓고 깊어지고 있다. 이는 장기제공자의 하나밖에 없는 肝일부를 떼냈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장기이식. 이제에는 일반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게 들리는 이 첨단의학은 보다 완벽한 치료법으로 정착되기 까지 슬한 난제를 안고있다.

그 첫째가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의 문제. 바로 필요장기의 수급관계이다. 이는 간, 심장 등 생명과 관계가 있는 장기와 신장, 안구 등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장기에 따라 사정이 다르나 어느경우에도 수요를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음성적으로 장기를 거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주로 신장)를 팔아 팔자를 고치는 사람들마저 크게 늘고

있다고 근착의신들은 전하고 있다. 심지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술취한 행인을 납치. 마취상태에서 안구를 도려내는 장기도둑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장기의 유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수요자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간에 피눈물나는 전쟁을 벌인 끝까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만도 각종 이유로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중 일부는 가족들의 장기를 이식받아 소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장기제공자를 찾지못해 안타까운 투병생활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에따라 장기기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성숙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장기이식의 성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문제. 이는 다분히 기초적인 문제로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치료 수단으로 장기이식을 채택한 만큼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버나드 박사가 세계 최초로 심장이식에 성공한 이후 장기이식에 성공한 이후 그 보급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이식된 장기는 다른 신체에 적응하면서 당연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따라 이식 후 일어나는 거부반응을 최소화시키는 게 관건. 현재 개발돼 있는 사이클로스포크린이나 FK506 등이 높은 면역억제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과학자들은 그 성능을 더욱 높이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임상적으로 신장이나 간, 심장 등 각종 장기에 대한 이식은 성공하고 있지만 이를 물려받은 인체내의 거부반응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완전한 거부반응상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이식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무엇보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 뇌사는 뇌기능이 완전정지돼 필연적으로 호흡이 멎는 심장사로 이어지므로 뇌사상태에서 건강한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게 되면 장기이식은 그만큼 더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지로 지난 '88년 국내에서 최초로 肝이식에 성공했던 서울대 김수태 교수는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내 현실에 부딪쳐 이후 간이식수술을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학협회 등 의사단체에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 이를 입법화시키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

뇌사를 인정함으로써 죽어가는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장기이식 또한 더욱 추진할 수 있다는 논서다. 미국의 경우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면허증 뒷면에 자신의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지면 장기이식을 해도 좋다는 내용의 의견

표시를 해놓고 있을 정도로 뇌사인정과 장기이식에 대한 사회적분위기가 성숙돼 있다는 것.

장기이식이 외국에서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신장이식 분야를 제외하고 간, 심장이식 등에서는 거의 황무지 상태인 것은 바로 뇌사상태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가지 문제가 따른다.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만큼 무엇보다 뇌사판정의 엄격성이 확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 아무래도 욕심이 앞서기 쉬운 장기이식관련 의사들은 판정단계에서 천천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生本 肝이식 등 최근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이식영역은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비록 간 자체가 복원능력을 지닌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떼낸다는게 최악의 경우 장기제공자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루어진 생체 간이식은 모두 부모자식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들 부모들은 형제간의 간이식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자칫하면 두사람을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

국내에서는 신체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부의 재산으로 고이 간직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자신의 장기 일부를 제공하는 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미덕중의 하나로 꼽고 있기도 하다. 卞